

기초부터 배우는 성경 공부

제27과 주야(晝夜)의 표상으로 계시된 개혁의 역사(2)

[단9:21-23]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22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23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2300주야 끝에 성소정결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성소정결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타미드가 회복되고 진리가 회복되었으며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예언이 지시한 그 시대에 합당한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엉뚱한 지점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한의 사실이라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이제 그 일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2300주야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1. 2300 주야의 시작하는 때

[단8:26,27]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27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은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다는 확인만 받고 그것이 언제 시작되는지 그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해석을 듣지 못하였다. 아무튼 그 작은 뿔이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는 것이 확실한데 그 실상을 알지 못하는 답답함으로 병이 난 것 같다. 그런데 이 주야의 이상은 십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상을 통하여 해석이 주어졌다.

[단9:21-23]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22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23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이 계시는 메데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통치한 원년에 다니엘에게 주어진 것인데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 70년이 거의 끝난 것을 알고 그 성취를 위하여 회개와 소원의 기도를 드린 직후이다. 메데 사람인 다리오가 바벨론의 임시 통치자가 된 것은 기원전 538년이다. 이때는 벨사살이 죽은 후이다. 8장에 2300주야의 이상을 본 10년 후이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2300주야의 이상을 알 수 있도록 해석하여 주신다. 이런 세월의 간격이 있는데, 2300주야의 해석이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니엘이 기록한 내용과 선택한 단어로 확인할 수 있다.

[단9:1,2] 메데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2 곧 그 통

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칠십 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2. 2300주야와 9장의 연결 문제

[단9:21-23]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22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23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단9:23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라는 말씀이 있다. “이전 이상”은 다니엘이 기록한 내용상으로 8장의 이상 외에 없다. 또 8장 이상도 가브리엘이 가르쳐주었다(단8:16). 그러므로 8장과 9장은 연관된 이상임을 오해할 수 없이 확실하게 알도록 해 주셨다.

또 “이상”이라는 단어도 이 두 이상의 사건이 동일 사건에 포함된 것임을 알게 해 준다.

다니엘서 8장에는 “이상”이라는 말이 11회 나타난다. 1절에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말은 “하노레아(ha:r]NIh)”인데, “라(ha:r;)”의 완료형이다. “라”는 “본다”는 말이다. 두 번째 말은 “하존(@/zj;)”이다. 8장의 나머지 10회의 이상이라는 말은 “하존”과 “마르에(ha,r]m)”로 기록되어 있다. 8:16절과 26절의 첫 번째 이상이라는 말이 “마르에”이고 나머지는 모두 “하존”이다.

절대적 구분은 아니지만, 이 두 단어가 함께 나타날 때는 이 단어의 성질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하존”은 계시 전체를 뜻하고 “마르에”는 “하존”의 부분 부분들을 뜻하는 것이다. 8장에는 몇 가지 사건이 계시로 주어졌다. 두 마리 짐승, 네 뿔, 작게 시작하여 심피 커진 뿔, 그리고 2300주야이다. 이 부분 부분들이 “마르에”이고, 이 전체가 “하존”인 것이다. 8장에서 가브리엘은 주야에 대한 “마르에”는 해석하지 않고 다른 것은 다 해석하였다. 그리고 10년 후에 다시 그 나머지 “마르에”를 해석하기 위하여 다니엘을 찾은 것이다.

단9:21절의 “이전 이상”은 “하존”이다. 그리고 23절의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는 말씀에서 “이상”은 “마르에”이다. 그러니까 8장의 이상 중에서 해석해 주지 않은 “마르에”를 깨달으라고 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8장 26절의 해석하지 않은 주야에 대한 이상인 것이다. 9장에 다시 연대적 계시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70이레의 계시이다. 그러므로 70이레는 2300주야의 부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을 것이라고 했는데, 끝은 2300주야가 다 지난 후이니 까 그 시작을 알면 끝은 당연히 알게 된다. 그런데 8장에서는 2300주야의 시작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런데 9장에서 8장의 그 마르에를 알라고 하면서 70이레와 그 시작을 지적해준다. 그러므로 70이레의 시작은 당연히 2300주야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

3. 70이레 기간에 있을 일

[단9:24]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그 마르에를 깨달으라고 하면서 유대민족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70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다고 말한다.

이 말씀 중에 “정하였다”는 말은 “하타크(&t'j;)”이다. 이 말은 “나누다. 잘라낸다. 결정한다.”는 뜻이 있다. 그러므로 어떤 긴 기간에서 일부를 잘라내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8장의 2300주야뿐이다. 70이레는 2300주야에서 유대민족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잘라낸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6 가지 일이 이루어진다.

- 1) 허물이 마친다.
- 2) 죄가 끝난다.
- 3) 죄악이 영속된다.
- 4)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 5)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
- 6) 지극히 거룩한 자(것)가 기름부음을 받는다.

이 사건들은 다 한 가지 사실을 여러 측면으로 표현한 것이다. 앞의 셋은 죄를 끝내는 것을 표현한 말이고, 뒤의 셋은 의가 성취되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죄가 끝나고 의가 성취되는 것이다.

5번은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예언의 성취에 대한 확증이 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모든 이상과 예언은 죄를 처리하고 의를 영원히 드러내는 것이 중심인 것이다.

6번의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는다고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곳)”이라고 번역해야 옳다. 이 말 “코데쉬(vd<q) 카다섬(!yvid;q;)”은 지성소를 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70이레 기간에 하늘 성소가 기름부음을 받는다는 뜻인데, 즉 하늘 성소봉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뜻이다.

성소를 짓고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였다(출40:9). 그러함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실 일을 마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성소에서 자신의 피로 봉사하실 것인데, 그 봉사를 위하여 성소가 준비 되는 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곳)이 기름부음을 받는다고 표현한 것이다. 하늘 성소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다.

이 70이레 동안 일어날 사건은 성경 모든 예언 성취의 척도가 된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 기간은 이 세상 역사의 시간에 일어날 일이다. 예언된 연대대로 성취되는 여부는 성경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4. 70이레 시작점

[단9:25]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70이레는 예루살렘 중건명령이 날 때부터 시작된다. 예루살렘 중건명령이 언제 내렸는지 알면 70이레의 시작을 알고 동시에 2300주야의 시작을 알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 찾으면 예루살렘 중건명령은 세 번 내린 것을 볼 수 있다.

- 1)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 기원전 538년(스1:1)
- 2)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 기원전 519년(스4:24).
- 3)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7년이다. 기원전 457년(스7:7,11)

이 중에 마지막 조서 때를 중건명령의 시작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앞의 조서들도 시행되기는 했지만 결과를 완전히 보지 못했고, 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했는데, 앞의 두 조서들은 주로 성전

중건이 중심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즉 이스라엘의 수도를 재건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7:21-26] 나 곧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 서편 모든 고직이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22 은은 일백 달란트까지, 밀은 일백 고르까지, 포도주는 일백 밧까지, 기름도 일백 밧까지 하고 소금은 정수 없이 하라 23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라 2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는 것이 불가하니라 하였노라 25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 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26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은 죽이거나 징배하거나 가산을 적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조서의 이런 내용은 정치적 자치를 허락한 것임을 당장 알 수 있다. 이런 모든 것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말씀과 잘 부합하기 때문에 457년을 기산점(起算點)으로 보는 것은 아주 합당한 것이다.

5. 457년이 기산점이 되는 것을 확인함

우리교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대부분의 개신교에서 인정하지 않고, 기산점이 틀렸다고 공격한다. 또 예언상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노아의 120년, 유대인의 포로 70년 등, 예언 연대나 실제 연대가 동일한데, 어떻게 예언 1일을 역사적 연대로는 1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라고 성토했다. 우리는 성경과 역사적 사건으로 이것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1) 예언 1일 1년 원칙에 대하여

[겔4:5,6] 내가 그들의 범죄한 헛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삼백구십 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6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사십 일로 정하였나니 일 일이 일 년이니라.

여기 1일 1년의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벧전1:10-12]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12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에 대하여 시와 때가 예언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 9장 70이레뿐이다. 그러므로 70이레에 대한 것을 역으로 풀이해보면 1일 1년 원칙을 떠나서는 결코 해석되지 않는다.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가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나는 때”이다. 그때가 AD 27년이다. 여기서부터 62이레와 7이레를 거슬러 올라가는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BC 457년에 떨어진다. $62 \times 7 = 434$ 년, $7 \times 7 = 49$ 년 합하면 483년이다. AD 27년부터 483년을 거슬러 계산하면 BC 457년이 된다. 483

년에 27년을 빼면 456년이 되는데, 연대에는 0년이 없기 때문에 456년에 1년을 보태주어야 한다. 정확하게 457년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언상 1일을 실제적인 1일로 계산하면 총 483일이 된다. 1년이 360일이기 때문에 483일은 1년하고 123일이 된다. 모두 1년 4개월 10일이 된다. 아닥사스다 7년에 조서를 내렸는데, 1일 1년 원칙을 버리면 기름부음 받은 왕이 일어나는 때가, 아닥사스다 8년 언제쯤 해당된다. 그때에는 유대에 왕이 일어난 일이 없다. 베드로서의 기록에 의하여 예수께서 고난 받으실 때는 70 이레의 마지막 한 이레 중 절반일 때이다. 기름부음을 받은 후 3년 반 만이다. AD31년 유월절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메시아 곧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때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도 여전히 BC457년이 기산점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

2) 성경의 조서에 대하여

성경의 조서는 왕이 내린 조서 전문(全文)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영감을 따라 필요한 것을 뽑아서 기록한 것이다. 성경에서 그런 예를 확실히 찾을 수 있다.

(1) 고레스의 조서에 대하여.

[스1:1-4]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2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와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4 무릇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 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 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대하36:22,23]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23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같은 조서를 인용하였지만 내용이 약간 다르다. 역대하의 내용은 에스라의 것보다 밑줄 친 부분이 빠졌다.

이뿐만 아니다. 여기 기록된 조서에 없는 내용들이 에스라서에 나타난다.

[스3:7]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옅바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이 말씀은 고레스의 조서에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옅바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스6:3-5]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의 고는 육십 규빗으로, 광도 육십 규빗으로 하고 4 큰 돌 세 켠에 새 나무 한 켠을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5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 은 기명을 돌려 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처에 돌지니라 하였더라.

이상의 기록은 고레스의 조서 내용을 필요에 따라 인용한 것을 분명히 증거한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조서가 조서 전문이라고 생각하는 고집을 버려야 한다.

[사44:26-28]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27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28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것은 고레스가 할 일에 대한 예언인데, 유다 성읍, 예루살렘과 성전 중건을 하도록 할 것을 예언한 것이다. 에스라서에 기록된 조서에는 없어도 틀림없이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읍을 중건하라는 내용도 포함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대하여

에스라 7:21-26의 조서에는 성전 중건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렇다고 그 조서 전문에 성전 중건 내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중건에 대한 내용이 있는 증거가 이스라엘에 있다.

[스8:36]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관원과 강 서편 총독들에게 부치매 저희가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느니라.

왕의 조서가 강 서편 총독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다고 하였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전을 도운 다는 것을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방인이 접근하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도왔을까? 현대 번역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번역했다.

[황제의 칙서를 받은 유프라테스 서부지방 지방장관들과 총독들은 백성을 도와 하느님의 성전 짓는 일을 거들었다.](공동번역)

[또한 그들은 왕의 칙령을 왕의 대신들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냈다.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왔다.](표준 새번역)

[그런 다음 그들이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과 관리들에게 황제의 명령이 적힌 편지를 전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적극 협조하였다.](현대인의 성경)

이것은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성전재건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확실한 것이다.

(3) 에스라6:14,15에 대하여

[스6:14,15]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좇아 전을 건축하며 필역하되 15 다리오 왕 육년 아달월 삼일에 전을 필역하니라.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좇아 전을 필역했는데, 다리오 6년 12월 3일에 했다.

아닥사스다는 다리오 다음 아하수세로 다음의 왕이다. 다리오 6년은 BC 517년이다. 그런데 아닥사스다의 조서는 BC 457년에 내렸다. 계산이 맞을 수 없다. 성전을 준공한 때는 아닥사스다 조서를 내리기 60년 전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따라 성전을 중건했다고 할 수 있느냐?

에스라는 다리오 때의 사람이 아니고 아닥사스다 때의 사람이다. 그는 다리오 때의 사건을 역사적인 것으로 기록하였다. 것처럼 또한 아닥사스다 때에도 성전을 재건하여 필역했다는 것을 쓴 것이다.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 아닥사스다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위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좇아”

라는 말에서 “명령”과 “조서”는 같은 단어 “타암, 테엠!['f', ![ef]”이다. 그런데 모두 단수이다. 세 왕이 내린 조서나 하나님의 명령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결국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다리오 때와 같이 아닥사스다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왕들을 감동하여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연대에 대하여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었다는 것을 중요하게 기록한 것이다.

6. 70이레 기간의 세 등분에 대하여

[단9:25-27]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26 육십이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엎몰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 아지리라 하였느니라.

1) 7이레x7=49일=49년 457년부터 49년 후인 408년까지 예루살렘 시가지가 복구되었다.

2) 62이레x7=434일=434년 457년부터 434년후인 기원 27년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

3) 한 이레x7=7일=7년

총 49일=490년이다.

마지막 7년은 두 부분으로 나누인다. 첫 3년 반 될 때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다. 기원 27년부터 가을부터 31년 유월절까지 3년 반 동안 예수께서 공중 봉사를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와 예물이 필요 없게 되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주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다가 34년에 스테반이 순교함으로 유대인을 위하여 잘라낸 490년 기간이 끝났다. 이제는 민족적 이스라엘이 더 이상 선민이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선민이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도 이방인과 동일하게 여겨진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의 선민이다.

[행4:23-28] 사도들이 놓이매 그 동류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24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25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6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이로소이다 27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28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말씀은 민족적 이스라엘이 시편 2편에 기록된 이방인과 동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부터 이방인과 동류가 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왕이 가이사라 되었기 때문이다.

[요19:15]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

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 이다.

[행7:55,56]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 대.

스테반이 순교할 때가 기원 34년이다. 70이레 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이때 하늘이 열린 것을 보여 주셨다. 이제 예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하늘 성소봉사를 시작하신 것이다. 그전에 유대인을 위한 특별 은혜기간이었다.

[히9:8]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유대인을 위한 특별 은혜의 시간이 남아 있을 동안에 아직 온 인류를 위한 공식적인 하늘성소 봉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스테반의 죽음으로 70이레의 은혜 기간이 끝나고 예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하늘성소 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70이레 기간은 틀림없이 성취되었다.

[벧전1:10,11]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예수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한 것이 바로 70이레 기간의 예언이다. 구약성경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고난 받으실 시와 때를 말한 것은 70이레 예언뿐이다. 5번에서 살펴본 말씀이다.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한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 이런 모든 증거를 제시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꼭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라고 사랑의 음성으로 권고하신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게 하여 영생의 생명을 확실히 얻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자.